

지역 소식통

고창군, 하수처리

재이용수 농업용수 공급

고창군이 농번기를 대비해 고창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재이용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고창 공공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 하루 1만6000톤이다. 하수처리 재이용시설(1만6000톤/일)을 통해 상습 한해 지역(이산면·고수면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고창천 건천화 방지를 위한 하천 유지용수에도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재이용수 총 107만 3,000톤을 공급해 재이용률 26.2%를 달성했다.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15.4%를 앞지르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고창 공공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구역 확대(고창신항리산업단지 기업 입주, 고창 하수관로 3단계, 석정온천 관광지 활성화)에 따라 2024년 시설용량 2만1000톤/일까지 증설을 목표로 총사업비 154억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중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부안군은 지난 28일 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제1회 적극행정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실행계획은 기존 관행과 선례만을 중시하는 업무행태를 개선하고 군민우선주의 행정을 위해 5대 추진방향 16개 세부추진과제로 수립됐다.

특히 실행계획에는 '당신의 100원도 소중합니다(미환급금 카카오톡 신청)', '공부상 미정비된 농업진흥지역 정비', '벼 권사진 인화 지원 서비스' 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중점과제를 선정해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으로 군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정석 적극행정위원장은 "20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이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돼 감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폭염 재난으로부터 주민 보호

고창군, 9월 30일까지 종합 대책 추진

고창군이 때 이른 더위에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고창군에 따르면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폭염 종합 대책 추진을 시작했다.

먼저, 기간 내내 상황총괄반, 건강관리지원반, 복지대책반으로 구성된 폭염 대책 TF팀을 가동한다.

TF팀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 종합지원상황실로 확대돼 분야별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폭염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군수를 본부장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다.

또한, 횡단보도 등에서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무더위 그늘막이 운영되고, 월곡공원에서 주변 온도를 낮추고 미세먼지를 절감하는 안개형 냉각수 운영도 시작한다. 아울러 도로 물청소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꼼꼼히 챙겼다. 경로당, 복지관 등에 무더위 쉼터를 마련해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등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독거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등은 폭염 고위험군으로 설정하고 폭염 피해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이외근로자들을 위한 특별 대책도 추진한다. 여름철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폭염 특보 시에는 작업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보호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공사장 실태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 "이르게 찾아온 더위와 다가올 폭염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빈틈없이 대응해 군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폭염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보충을 해주는 등 폭염 행동 요령을 숙지해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시민참여 정책제안 페스티벌 수상작 11건 선정

정읍시, 특별주제 우수상

일반주제 우수상 시상식 진행

정읍시는 최근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실현하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하기 위해 추진한 상반기 시민참여 정책제안 페스티벌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정읍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제안을 공모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고택사랑기금사업,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기금사업, 청년이 머물고 싶은 정읍시를 위한 정책 제안 등 특별주제를 비롯해, 우리 주변에서 개선·시행해야 할 정책 등 일반주제로 공모 분야를 나누어 시행했고 총 432건



의 다채로운 제안이 접수됐다.

시는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경제성, 실용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수상작 11건(시민 5건, 공무원 6건)을 선정해 이날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특별주제 우수상은 △청년참여포인 트제도 운영(김인경, 공무원)이, 일반주제 우수상은 △지역경제와 정읍 관광 활성화를 위한 뉴미디어 활용 방안(김경철)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 학부모회 협의회 발대식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장기선)에서는 부안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와 학부모회 협의회가 부안지역 학생들의 교육발전을 위해 지난 25일에 권익현 군수, 김광수 부안군의장 김두례 부안군의원, 김정기·김습지 전복도의원, 이춘이 부안꿈터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 발대식을 가졌다.

특히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단위



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교과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

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치된 단체이다.

학부모회 협의회는 지역교육 협력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올해 처음 설치된 단체이다.

이번 이점하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과 강경아 학부모회 협의회장이 새로 선출됐다.

부안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한 권익현 부안군수, 김광수 부안군의회의장 최진규 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등에게 감사패 및 감사장을 전달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대표적 소득작목 육성할 것”

권익현 부안군수, 비닐하우스 복숭아 첫 출하 농가 방문 격려

권익현 부안군수는 최근, 비닐하우스 복숭아 첫 출하 농가를 방문하여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올해 처음 출하된 복숭아는 부안군 주산면 사근리 청년농부 김가을씨의 5000㎡ 규모 시설하우스 재배농장에서 수확된 복숭아로 지난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했다.

지금 수확되는 복숭아는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조생종 '조대홍'이라는 복숭아로 노지 복숭아보다 한 달 정도 일찍 출하되어 6월 초까지 수확이 가능하다. 당도는 12브릭스 이상으로 가격은 25kg 상품이 최고 7만 원 선이고, 평균은 3~4만 원 선에 서울가격과 비교하여 주시기가 바쁘다고 말했다.

또한 6월10일부터 출하되는 중생종인 경복복숭아는 부안군의 프로모션 지원을 받아 부안군 텃밭할매쇼핑몰



과 우체국 소포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량 판매할 예정이다. 부안 시설 하우스 복숭아는 6농가 5ha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5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가고 매년 10톤가량을 생산, 25억여 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은 복숭아 재배의 최적지로 복숭아 재배를 20ha까지 확대재배하여 부안의 대표적인 소득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고품질 '내장산 복분자주' 홍콩 수출길

정읍시의 전통과실주 브랜드 '내장산 복분자주'가 홍콩 수출길에 오른다.

내장산 복분자영농조합(대표 최성호)은 중국 국경기업인 'ααα'와 계약을 체결하고 최근 복분자주 7,400병(380ml)을 수출하는 상차식을 가졌다.

이번 상차식에는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전진기 소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내장산 복분자 영농조합 최성호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사리맛은 단종보다 붉은색을 자랑하는 '내장산 복분자주'는 내장산 일대에서 재배한 복분자만을 사용해 빛은 전통주로 국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최성호 대표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정읍의 농산물과 대한민국 전통주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인정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200년 첫 수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차 수출이 이어져오고 있는 것은 내장산 복분자주가 홍콩 시장에서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읍-지역언론사, 가로환경 조성 공동캠페인

부안읍행정복지센터(읍장 김창조)와 지역 언론 10개사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캠페인 협약을 맺었다.

부안읍과 지역 언론사 대표들은 최근 부안읍행정복지센터에서 협약을 갖고 부안읍 시내 가로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하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 협약식은 오는 8월 1일 개최되는 2023새만금 제25회 스카우트캠프를 앞두고 부안읍의 고질병인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해 세계 청소년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부안을 보여주자는 뜻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협약으로 지역 언론사들은 지면을 통해 쓰레기 배출시간 지키기 및 규격봉투 사용 등을 홍보 부안읍은 이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부안읍 시가지는 그동안 전선지중화 사업,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무질서한 쓰레기 배출 등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